

### 사진작가협 광주회장 선거 시끌

현회장 재출마 위해 정관 개정·총회 연기 갈등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강춘자)가 지회장을 뽑는 총회를 연기하는 등 지회장 선거와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광주시지회 전직 회장으로 구성된 고문단 일부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회장이 일방적으로 정관을 개정해 재출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 지회장이 ‘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제13조)고 규정한 정관을 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 뒤, 재출마하기 위해 총회(1월25일)를 무기한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상급단체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이번 사태에 대해 의뢰한 결과 “이번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위법이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강 지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지회장은 “지회 의결기구인 간사회의를 통해 정관 개정을 했고, 총회 연기는 일부 회원들이 신임 지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협회의 유권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연기된 총회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는 지역의 사진작가 48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광주시사진대전을 주관하고 있다. 지회장에게는 이 사진대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1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린 ‘천원의 행복’ 공연에서 강승용씨가 마림바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제공>

## 천원으로 느끼는 클래식 매력 악기와 함께하니 더 친숙해져

“마림바는 중앙아메리카 민속 악기에서 유래했죠. 건반은 장미 나무로 만듭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재료 연주할 수도 있고, 네 개를 손에 쥐고 연주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타악기 마림바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악기다. 지난 21일 밤 광주시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1층 작은 무대를 찾은 이들은 행복한 경험을 했다. 관객들은 타악기 연주자 강승용씨의 해설을 들으며 마림바에 대한 지식을 쌓고 흥겨운 연주를 감상했다. 공연 후에는 마림바는 물론이고, 강씨가 준비해 보며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천원으로 클래식의 무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천원의 행복’이 지역 문화계에 의미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 관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천원의 행복’은 친절한 교과서 같은 공연이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천원의 행복’은 지난 2009년 9월 광주시 동구 황금동 어린이왕자 스튜디오에서 첫 음악회를 열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특산물 풀뿌리 문화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이 의



### ‘천원의 행복’

매일 셋째주 월요일 공연

악기시리즈 관객과 호응

연령층 다양 고정팬 생겨

기부함, 클래식 음악이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일 셋째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복’에 참여하는 ‘고정팬’들이 생겼다. 관객들의 연령층도 다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를 찾는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악기 시리즈’는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플루트, 트럼펫, 트럼본, 호른 등 다양한 악기를 소개하고 연주를 듣는 시간은 관객들이 클래식과 한층 친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최측은 또 캐럴과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신년음악회,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기도 한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천원의 행복’이 20회 가까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출연료에 상관없이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음악인들 덕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김정태·이경석·최순아·오인표씨 등 많은 음악인들이 다녀갔다.

‘천원의 행복’을 통해 클래식의 매력을 알게 된 이들은 직접 티켓을 구입해 클래식 공연장을 찾기도 한다. 남편, 두 아들과 함께 꾸준히 음악회를 찾고 있는 서말순(34·광주 남구 양림동)씨가 그런 경우다.

서씨는 “다양한 악기를 직접 가까이서 보고 설명을 들으며 음악을 감상하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클래식이 조금은 친숙해졌다”며 “천원의 행복 덕분에 클래식에 관심을 갖게 돼 공연장에도 직접 찾아간다”고 말했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이 적어 힘들기는 하지만 70대 어르신 등 고정 관객들이 음악회를 진행하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2030, www.gja-sia.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람... 풍경... 인도의 삶...

리일천 사진전, 내달 2일까지 무등갤러리

사는 게 숨차면 가발을 싸 인도로 가보라. 삶의 고단함을 속명으로 깨닫고 해맑게 웃는 소년들의 눈을 보면, 그레도 살아 볼 힘이 날 것이다.

사진작가 리일천씨가 오는 3월2일 까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인도의 사람과 풍경, 삶을 담은 ‘인디아+사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최근 인도 바나나시와 스라바스티 일대를 직접 돌며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을 선사한다. 이들 작품은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

리씨는 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이사과 광주시지회 회장을 역임했고, 5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 민족사진가협회 정회원, 한국 노블 포토클럽 원장, 광주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이다.

2년 전부터 지역 미술인 100인을 선정해 10년 동안 그들의 작품세계와 삶을 사진에 담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



‘보드가야-보드가야의 밤 1’

### 아름답구나! 우리 산

한국산악사진가협, 26일~3월1일 증심사 입구

국내 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한국산악사진가협회(이사장 이광래)가 26일~3월1일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아름다운 우리산하’전을 연다.

무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병순·김신호·김영·민경원·박승호·박진

호·송영주·안길열·이근수·이석찬·장인호·황운천씨 등이 참여해 국내 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한편 한국산악사진가협회는 지난 해부터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도봉산, 주왕산 등지를 돌며 야외 전시회를 열고 있다. 문의 062-265-076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광래 작 ‘설악 공룡능선의 아침’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에 김희중 대주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2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김희중(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대주교를 임기 2년의 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이날 총회 직전 열린 7개 종단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

단 전원의 추대로 대표회장에 선임돼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교 대토론회와 예비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청년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이날 또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구제역 초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정부의 각성과 종교인들의 참회와 회개, 생명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촉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문화재 등록

근대 문학작품으로 처음 127개 작품 수록



1925년 발간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 2종 4점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우리나라 근대 시기에 출판된 문학 작품으로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24일 “시집에 대해 표지의 꽃 그림 도안과 ‘꽃’의 표기가 1920년대에 찾기 어렵다는 일부 소장자의 의견이 제기됐지만 여러 차례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문화재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문사 초판본 진달래꽃은 총판본에 따라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과 중앙서림총판본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번에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유물은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 3점과 중앙서림 총판본 1점(개인소장)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는 처음이다. 등록 대상 시집은 1925년 12월26일 매문사(賣文社)에서 발간한 초판본으로, ‘진달래꽃’을 비롯해 ‘먼 후일’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초혼’ 등 127개 작품이 수록됐다.

# 古家 고향의 맛

## 고가약오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정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

Arts Hall Hotel & Wedding

관광호텔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웨딩전문 1급관광호텔**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 웨딩특전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1. 광주의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2.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으로 인한 축의금 창출효과
3.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4.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5.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6. 차별화된 호텔식 즉석 뷔페
7. 혼주,가족 전용 VIP룸 이용
8.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하니문 톨러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9. 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헬퍼비와 패케트수모비서비스)
10. 타 예식장 식비대비 2~3천원차이의 합리적 식사비 (3만원 - 3,4,5,10,11,12월 / 2만8천원 - 1,2,6,9월 / 2만6천원 - 7,8월)
11. 이브닝예식 뷔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톨러서비스
- 하객 400명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객실특전**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30가지)

객실료 50%할인 7만원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가능**

객실예약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콜센터 옆) | www.hotelarthall.co.kr